

배우 마동석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재밌으니까”

영화 ‘범죄도시3’로 돌아온 배우 마동석
연기·각색·제작 등 1인 다역 새 이정표
“세 번째 영화 전작보다 복싱 액션 강화”

배우 마동석(52)은 액션 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말로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복싱 자세를 잡아 하며 어떻게 액션 장면을 만들어갔는지 설명했다. 천천히 주먹을 휘둘러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위를 어떻게 가격하면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얘기하기도 했다.

액션 관련 답변을 할 때면 그는 때면 “이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해놓고는 액션 신(scene)에 관해 꽤 오래 얘기하곤 했다. 액션에 관련된 얘기만으로도 인터뷰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동석은 정말이지 액션에 진심이었다.

이런 마동석이 만든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가 세 번째 영화로 관객을 다시 찾는다. 2017년 첫 번째 영화가 688만명, 지난해 두 번째 작품이 1260만명이 본 ‘범죄도시’ 시리즈는 아마 역대 한국영화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리즈이다.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 이후 유일하게 3편 이상 만들어진 영화 시리즈이기도 하다. 마동석은 앞서 ‘범죄도시’ 시리즈를 8편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영화는 국내에서만큼은 유일무이한 작품이 될 것이다.

인상적인 건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동석이 진두지휘한다는 점이다. 그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연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 직접 참여하며 이 기획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다. ‘범죄도시’ 시리즈 자체가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프로젝트이고, 이 계획 안에서 마동석이 하는 일 역시 다른 어떤 배우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할리우드 제작사와 협업을 준비 중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 해내면서도 그는 “재밌어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액션 연기에 관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동석이 정말 그 일을 재밌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범죄도시3’ 공개를 앞두고 마동석을 만났다. 그는 언제까지 액션 연기를 할 생각이나는 물음에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며 앞서 했던 말을 곧바로 수정했다. 배우이자 제작자로서 이미 할리우드와 협업을 확정된 그는 “실제해더라도 계속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 개봉 앞두고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 한국 영화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등판하는 구원투수로 여겨지고, 전작이 1000만 관객을 달성해 흥행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 같다.

“극장에 사람이 너무 안 와서 마음이 아파요. ‘범죄도시3’가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면 좋겠어요. ‘범죄도시2’는 우리가 충격을 먹은 정도로 잘 났어요. 그때가 팬데믹 기간이어서 손익분기점만 넘겼으면 됐어요. 이번 영화에 기대하는 관객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역시 손익분기점인 180만명을 넘기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 1000만 영화의 후속작 치고는 너무 소박한 목표 아닌가.

“아직 손익분기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180만명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웃음) 일단 손익분기점 넘기면 한숨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 빌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전작 두 편에선 빌런이 한 명이었는데, 이번엔 두 명이다. 물론 빌런 두 명이 나와서 영화를 다채롭게 할 수 있지만, 빌런의 강력함이 분산될 수도 있죠.

“당연히 고민했다. 셀 수 없이 회의를 하면서 빌런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했다. 그렇게 반복해서 회의를 하다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1·2편과 마찬가지로 빌런이 또 한 명이면 뭐가 좋을까. 전작과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빌런이 2명이어서 시선이 분산될 걸 우려해 도전하지 않으면 8편까지 이어갈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8편까지 비슷한 빌런을 반복해서 등장시킬 수는 없지 않아요.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앞으로 영화에선 빌런 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성 빌런이 나올 수도 있고, 외국인 빌런이 나올 수도 있죠. 실패해도 도전할 거예요.”

- 그렇다면 ‘범죄도시’ 시리즈의 핵심인 액션은 어떻게 달라졌나.

“복싱 기술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어요. 물론 전작에서도 복싱을 썼어요. 사람들이 눈치 못 챘을 뿐이에요. (웃음)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줄 안다. 어쨌든 이번엔 복싱 액션을 더 많이 넣었어요. 사실 복싱 액션이 쉽지가 않아요. 복싱 기술 중에 액션에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진짜로 때리지 않으면 구현이 안 되는 기술이 있죠. 또 실제보다 타격감이 잘 살지 않는 기술도 있죠.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 중에서 멋지고 효과적인 액션 장면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에요. 복싱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스포



링 하면서 훈련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싱 액션을 계속 진화시킬 거예요. 아마 앞으로 나올 작품에선 다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던 복싱 액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이번 작품에서 어떤 액션 장면이 가장 힘들었나.

“다 힘들었다. (웃음) 빌런이 돌아와 할 게 너무 많았어요.”

- 액션 연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

“글쎄, 앞으로 한 10년이 맥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실베스터 스텔론 형님이 ‘털사 캣’에서 액션 연기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웃음) 잘 모르겠어요.”

- 액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4편 액션이 기대된다. 아무래도 무술감독 출신 감독이 연출했으니까 더 강하게 나올 것 같다.

“그렇기도 한데 허명행 감독은 연출을 할 때는 드라마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액션은 저와 허 감독이 함께 의논해서 만들었어요. 일단 4편에서는 김무열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것만 알려드린다.”

- 액션과 함께 ‘범죄도시’ 시리즈의 또 다른 한 축은 코미디다. 전작들도 그랬고 이번 3편 역시 웃음 타율이 꽤 높았다. 코미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일단 웃음은 두 번째라고 본다. 일단 좋은 캐릭터가 있어야 하고 사건을 빌드업 해 가면서 액션과 함께 그 이야기에서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웃음이다. 코믹한 대사나 상황 같은 건 내

가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도 하지만 스텔프와 오래 의논한 끝에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워낙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수차례 각색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의 아이디어로 웃음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평소에도 재밌는 걸 좋아하고 개그 욕심이 있는 내 성향이 반영되기도 했다. 애초에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와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인물로 만들고 싶었다. ‘다이하드’를 보면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진짜 힘든 순간에도 웃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를 원했다.”

- ‘범죄도시’ 시리즈가 보여주는 코미디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기려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그 캐릭터가 실제로 할 법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건 관객이 납득이 돼야 터지는 거예요. 액션도 그렇지만 코미디도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액션이든 코미디든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다. (웃음)”

-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단순히 재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처음엔 즐거워서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정성이 문기 시작하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면 책임감이 생긴다. 물론 스트레스는 있다. 그래도 이런 좋은 스트레스다.”

- 마지막 질문이다. ‘범죄도시’ 시리즈를 관객이 좋아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글쎄, 일단 카타르시스 아닐까. 극한의 상황에서 놓치지 않는 유머도 좋아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마석도가 가진 한 스펀의 귀여움까지. (웃음)”



“결혼은 43살쯤”...임영웅 첫 단독 예능 6.2% 출발

가수 임영웅이 모친에게 10년 뒤쯤 천천히 결혼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마이 리틀 히어로 1’회에서 집밥 레시피 전수를 위해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자신의 최애 메뉴인 오징어찌개를 요리했다. 음식을 하면서 임영웅은 본인 가족만의 비법이 담긴 오징어찌개를 자랑하며 할머니에서 어머니, 또 자신에게 해주며 이어간다고 했다.

이 말에 할머니가 “너도 이제 아들 낳으면 해줘야 한다”라고 했고, 임영웅은 능청스럽게 “내일 낳아버릴까?”라고 농담했다. 할머니가 뭐가 있냐면서 손자의 연애소식을 궁금해하자, 임영웅은 “없죠”라고 답했다. 이들은 본 어머니는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고, 임영웅은 “다른 엄마는 빨리 장가가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10년 있다 가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영웅은 단독 리얼리티 예능출연을 하면서 “무대 위 히어로가 아닌 보통의 서른셋,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이날 그는 첫 LA 여행을 위해 방송인 타일러에게 영어 과외를 받고, 여행가방을 싸면서 최초로 드레스룸도 공개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마이 리틀 히어로 1’회 전국 기준 시청률은 6.2%를 기록했다.



BTS 슈가, 印尼서 솔로 아시아 투어 포문 열어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솔로 아시아 투어 포문을 열었다.

2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26-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컨벤션 전시장(ICE BSD) 홀(Hall) 5-6에서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 디-데이’(SUGA | Agust D TOUR ‘D-DAY’)를 펼쳤다.

총 3회 전 회차 매진(관객 총 3만여 명)된 이번 자카르타 공연에서 슈가는 솔로 앨범 ‘디-데이’ 타이틀곡 ‘해금’을 시작으로, 기존의 믹스 테이프 타이틀곡 ‘대취타’와 ‘어거스트 디’까지 이어지는 무대를 통해 ‘어거스트 디 트릴로지’(3부작 시리즈)의 역사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 슈가와 또 다른 자아 어거스트 디를 아우르는 공연을 펼친 슈가는 특히 어쿠스틱으로 편곡한 ‘트리비아 전: 시소(Trivia 전: Seesaw)’와 피아노 연주를 곁들인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등으로 색다른 매력을 내뽐냈다.

빅히트 뮤직은 “눈을 땀 수 없는 무대 구성과 연출, 적재적소에 녹여진 각각의 VCR은 볼거리를 더하며 공연의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면서 “슈가는 이번 콘서트에서 안정적인 라이브와 노련한 무대 매너로 완성형 공연 감자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칸의 남자’ 배우 송강호 3년 연속 폐막식 참석

배우 송강호가 명실상부 ‘칸의 남자’가 됐다. 27일(현지시간)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 ‘거미집’ 배급사 바른손이엔이에 따르면, 송강호는 이날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나선다.

폐막식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비롯 심사위원대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등 총 9개의 분야를 시상한다. 송강호가 어느 부문에 시상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송강호는 감독주변에 초청됐던 ‘괴물’(2006)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8번째 칸 초대를 받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배우 최다 초청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뉴진스, 비주얼·음악적으로 관습에서 자유롭다”

美 유명 매거진 하이스노바이어티 표지 장식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K-팝 그룹 최초로 글로벌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하이스노바이어티(Highsnobiety)’ 표지를 장식했다.

27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스노바이어티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6/7월호 미국판 표지를 공개했다.

하이스노바이어티는 “전례 없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K-팝 그룹”이라고 뉴진스를 소개했다. 이어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 안무 챌린지 열풍과 K-팝 걸그룹 데뷔 앨범 조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신기록 등을 짚으며 “이는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목했다.

매거진은 또 “환상적이고 미스터리해 싸인 아이돌로 가득한 산업에서 뉴진스는 소꿉친구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친숙하고, 다정하다”며 “그들은 비주얼로도 음악적으로도 관습에서 자유롭다”고 표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스노바이어티와 인터뷰에서 도전, 방향성, 목표 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들려줬다. 민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뉴진스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린은 “뉴진스라는 그룹의 성장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저는 거기에 큰 설렘을 느낀다”며 “앞으로의 뉴진스는 뉴진스가 만들어 나갈 거고, 거기에 포함되는 저도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혜인은 뉴진스의 목표에 대해 “정확히 하나만 고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 나가면서 최종 목표가 생길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니엘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며 멤버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하니는 좋아하는 한국어를 표현으로 ‘설레다’를 꼽으며 “그 말에는 두근거리고 순수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올해 여름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발매한 첫 싱글 ‘OMG’의 선공개곡 ‘디토’와 타이틀곡 ‘OMG’는 따로 프로모션 없이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각각 5주와 6주 연속 진입했다.